

지역 소식통

완주군창업보육센터  
무한상상실 참가자 모집

제품개발을 장비활용을 완주군에서 배울 수 있다.

19일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무한상상실은 '제품 개발을 위한 장비활용 융복합 교육(시즌2)' 강좌를 개설하고 1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내달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6회에 걸쳐 진행되며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마스 스타일러를 제작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11월 6일까지 창업보육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290-2487, 2488)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봉센터, 농촌일손  
돕기 봉투어 진행

김제시봉센터(센터장 허현기)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공덕면에서 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해피통통 봉투어'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봉투어는 코로나19로 타 도시의 관광객 유입이 어려워 김제 관내 자원봉사단체, 가족 및 청소년 봉사자들과 함께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고구마 캐기 봉사활동을 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을 구하지 못해 막대한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수확한 고구마는 지역 내 응원과 위료가 필요한 필수노동자(돌봄 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 300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농촌일손 돕기에 참여한 학생은 "고구마 캐기는 처음 해봤는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현기 센터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농촌지역에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농촌일손돕기 봉투어를 통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김제시자원봉사센터는 연령별 김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내, "상생 · 협력할 것"

정주여건 향상 · 주거복지 안정화 · 도시개발 · 도시재생사업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완주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와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의 협력을 이어간다.

19일 완주군은 완주군청에서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와 '상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완주군 내 정주여건 향상 및 주거복지 안정화, 도시개발 · 도시재생사업, 수소경제특화 국가산단단지 추진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 있는 분야의 사업들에 상호적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완주군과 LH는 지역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삼례읍 수계리~봉동읍 고천리 일원에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웰빙시티)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웰빙시티에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 A-2BL) 공급을 위해 현재 지구 내 분양홍보관(견본주택)을 설치해 홍보 중에 있다.

민간건설 공동주택(대우-푸르지오)도 지난 9월 18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지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원주=이종복 기자

이외에도 완주군과 LH 전북지역본부는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삼례 행복주택사업을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조성하는 (구)봉동터미널 자리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건설사업 이외에도 주거(임차)급여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공덕면에서는 10월부터 공덕면 유관기관을 방문해 '시민결에 김제 인구정책'을 홍보하고 전입유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행복한 우리 마을로 오세요"

김제시 공덕면, 전입 유도 캠페인 추진 중

김제시 공덕면(면장 천만영)에서는 10월부터 공덕면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시민결에 김제 인구정책'을 홍보하고 전입유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는 공덕면에 사업장이 있거나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타지역에 둔 주민들의 전입을 유도하는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가파른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공덕면 행정복지센터와 공덕농협은 이번달 19일 아침 출근시간 통행이 많은 공덕농협 앞에서 주민 대상으로 전입유도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덕농협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번 캠페인에 참가하는 등 앞으로 김제시 인구감소 문제에 힘을 보

태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덕면은 그간 1읍면동 1출산친화 1전입시책을 추진했으며 출생자 5만원 축하꾸러미 전달, 100일 케이크 등 인구늘리기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우리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공덕면의 인구 감소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힘을 모아 인구지키기 실천을 적극 촉발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천만영 공덕면장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전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구 늘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노인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강화

### 수행기관과 간담회 · 업무협약 5개 권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완주군이 노인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총총히 하고 있다.

19일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완주군 5개 권역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업무간담회 및 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개 권역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완주지역자활센터, 용진노인복지센터, 예은노인복지센터, 구이노인복지센터, 완주노인복지센터다.

행사는 2020년 자살예방연구조사 일환으로 '완주군 독거노인의 우울과 사회참여가 자살사고(자살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발표를 진행하고 독거노인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논의, 생명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완주군은 2020년 완주군 자살예방 연구조사를 시행했고, 우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참여 수준이 높으면 자살로 이어지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참석기관들은 완주군 노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해 정신건강 및 자살 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치료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노인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활성화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군 상담, 치료 연계 ▲노인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기타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지원이 포함됐다.

한편, 완주군보건소 산하 완주군정신

건강복지센터는 2017년부터완주군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해 연구사업을 진행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선별된 대상자들에게 상담 및 맞춤형 개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완주군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보건소 - 전북지역암센터, 6대암 대상 검진 실시

김제시보건소와 전북지역암센터가 연계한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완치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사업이며,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 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암검진이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암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몸에 이상증세를 느껴야만 병원을 찾는데 그럴 경우 이미 수술로 제거할 수 없을 만큼 암이 커져 있거나 다른 조직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이상이나 증상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검사를 받음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를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권장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사랑학재단, 학부모 임시교실 개최

김제사랑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은 19일 지평선학당에서 관내 중고생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시로 바뀌는 임시정책 변화에 맞춰 학부모들의 정보력을 키우고 자녀와의 임시공감을 위한 학부모 임시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교실에서는 '2022년 이후 임시변화 사항 점검 및 준비'라는 주제로 코로나 19로 대입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임시변화상황을 체크하고 변화되는 임시제도에 대해 경청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교과, 비교과, 수능관리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등 학부모들의 눈높이 맞는 임시정보를 제공했고, 장학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사업 홍보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종로학원 임시컨설팅 전문기인 한대규 지평선학당 부원장은 "대학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임시제도를 잘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대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잘 선택해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시교실에 참석한 학부모는 "수시로 변하는 대입전형에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현실적인 조언과 전략에 대해 알게 되어 조금 마음이 놓였고, 입시에 대해 아이와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어 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성문 상임이사(인재양성과장)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시로 변화하는 입시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입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